

분류	전도훈련원 졸업예배
제목	성공한 제자들의 비밀
성경	사도행전 1:1-8
일시	2012년 1월 31일
장소	렘넌트 신학교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 (사도행전 1:1-8)

- 0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 0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 0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 0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05/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0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 0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0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녹취 자료 ♣

♣ 서론

▶오늘 신학원, 선교사훈련원, 전문사역훈련원 졸업식인데 아닌 분들도 많이 참석했다. 축복으로 같이 응답을 받게 되었다. 성공한 제자들의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졸업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 가지 축복을 찾아내면 된다.

▶그거 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했다. 이 분이 내 제자라고 하면 같이 있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인들을 보고 기도제목들 적어내보라고 했다. 기도제목들이 거의 다 엉터리다. 엉터리로 한 게 아닌데 막연하고 안 될 기도들이다. 그래서 그것부터 고쳐줬다. 그것부터 고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도 주었다. 그리고 실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가르쳐줬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강단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너 손으로 권세 사용해라.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기도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학은 뭐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못 따라온다.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를 가르쳐줘라.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 100만명이 앉아 있다 손치더라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10명이 앉아있다 손치더라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과 처럼 막연하게 하거나 철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에게 맞는 기도제목이 있다. 어렵지 않다. 상대방을 보면 보인다. 그것부터 해줘야 한다. 이 사람이 응답 받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틀리게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역이 된다. 특히 학생들은 할 줄 모른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고 마지막에도 기도를 가르쳤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평소에는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설교법은 안 가르쳐도 기도는 가르쳤다.

▶당장 오늘부터 내 기도가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심방 때라든가, 목사님들 오시면 물어봐라. 아니면 선물 들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제목 보여드리고 물어봐라. 대부분 다락방 멤버들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 물어봐서 그렇다. 목사님들도 막연하게 기도만 했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목회자들은 지질로 보이게 되어 있다. 안 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어디가 틀렸는지 보인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런 귀중한 것은 안 해주고 막연하게 기도만 해줬다. 여러분은 졸업과 동시에 어디 가서 교만하게 기도제목이 뭐다라고 가르쳐주시지 말고, 네 기도가 엉터리라고 하지 마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굉장한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매일 세 가지를 발견해라.

- (1)행1:1, 3, 8 속에서 매일 같이 나를 발견해라. 매일의 나라는 게 있다. 매일 나를 발견해라.
- (2)행1:14를 붙잡고 매일 같이 나의 것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내

게 주신 것을 발견해라.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 행1:14를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놀라 온 게 아니다. 자기 것을 본 것이다. 그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확실하게 보인다.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보인다.

(3)나의 현장을 매일 찾아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나의 현장을 매일 생각해봐라. 성경은 행2장에 일어났던 게 가장 큰 현장이다. 행2장에 5가지가 나왔다. 행3:1의 현장이다. 행8, 9, 10장에 증지가 나온다. 행11:19, 현장이다. 행13:1, 현장이다. 행16:19-31, 행27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놓고 보면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현장은 뭐냐? 계속 질문하다 보면 열흘 쯤 하다보면 뭔가 응답이 온다.

▶그것을 계속 하다보면 어느 날, 뭐가 오는가?

이 안에 다 있는건데 내가 무엇을 몰랐지. 이것을 계속하다보면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막상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현장은 놔두고 다른 것을 계속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내게 주신 축복을 못 찾았다는 말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이 달라진다. 응답 받아서 우물거거나 교만해지지 않는다. 미안해진다. 이제 내가 알았구나. 갖고 가서 티낸다는 건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응답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구나. 내가 머리가 나빴구나. 내가 왜 이제 알았지. 늘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나만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겠구나.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건 굉장한 영적 아이큐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하는 분은 본 적이 없다. 김준곤 박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한국이 낳은, 호남이 낳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 분을 볼 때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걸 느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다. 김준곤 박사님을 만났을 때에 이 분은 복음을 위한 게 느껴지더라. 정말 그 분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 분이 저를 정말 존경해주셨다. 덕평까지 왔다 가셨다. 전도운동만 하라고 하셨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오늘 모처럼 속이 통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혼자 하신 말씀이다. 전도, 복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아이큐를 발동시켜봐라.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인가?

정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www.jcking.net ②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